

01 교회소식

하늘에서 내려온 잠자리

2006년 이래 지금까지 매년 여름이 되면 기이한 잠자리 떼가 만민 성도들에게 찾아와 행복한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

02 생명의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시몬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 영광 돌리는 비결을 알려 주는 심오한 말씀의 의미를 살펴본다.

03 기획특집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는 법

마음의 비진리를 벗고 미세한 성령의 음성에도 순종하며 불같이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을 수 있다.

04 간증

‘나’를 버리기까지

성경의 복음으로 변화돼 WCDN 사역을 통해 전 세계 영혼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전하고 있는 황준하 장로 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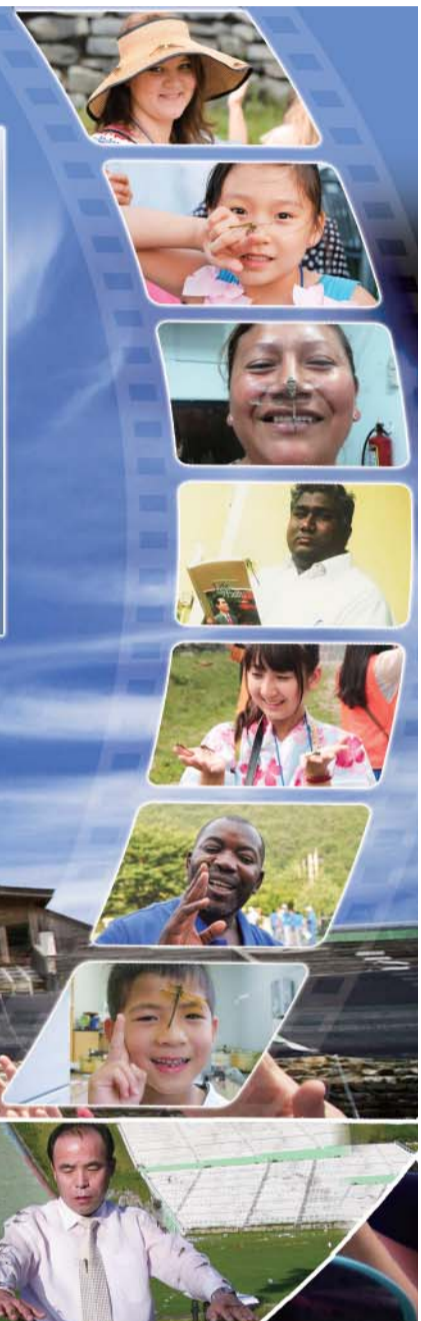
# 만민뉴스

제694호 2015년 7월 12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하늘에서 내려온 잠자리, 만나 보셨나요?”



해 주변에서 하얀 눈송이처럼 하강하는 잠자리들.



해마다 여름이 되면 국내 및 해외 만민 성도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기한 잠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행복해하고 있다(큰 사진은 만민 하계수련회 시 성도들이 모여 잠자리를 손가락 끝에 얹고 있는 모습).

### 성경의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기이한 잠자리 떼

반짝반짝 너울너울 하얀 눈송이가 하늘에서 내려오듯, 수많은 잠자리 떼가 해 주변에서 일시에 내려와 성도들의 몸에 사뿐히 내려앉는다.

낙하산은 바람이 세게 불면 목적지점에 제대로 착지하지 못하는데, 가벼운 잠자리들은 하늘에서부터 춤을 추듯 갈 지(之)자로 떨어지며 성도들이 모인 곳에 정확하게 안착한다. 그뿐 아니라 성도들의 손, 머리 등 온몸에 앉아서 날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심지어 성도들이 쓰다듬고 입을 맞춰도 그대로 붙어있곤 한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잠자리의 생태를 알면 더욱 그렇다. 잠자리는 최대 약 2만 8천 개의 날논이 모인 겹눈

한 쌍을 가지고 있다. 겹눈은 조금씩 다른 방향을 향하는 수많은 날논이 모여서 이뤄졌으며, 겹눈을 구성하는 각각의 날논은 볼록렌즈 모양의 육각형 각막과 빛을 모으는 원추정체로 구성됐다. 날논들의 방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머리를 돌리지 않아도 위아래, 앞뒤좌우를 동시에 볼 수 있다. 20미터나 떨어진 곳에서도 움직이는 물체를 볼 수 있으며, 최고 37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물체의 움직임도 간파할 수 있다.

그러니 잠자리는 본래 손으로 잡는 것조차 쉽지 않다. 그럼에도 만민 성도들에게는 친근히 날아와 앉는 것이다. 2006년 8월 초, 전북 무주에서 열린 전 성도 만민 하계수련회에서 성도들은 처음으로 이런 잠자리로 인해 이색적인 즐거움을 느꼈을 뿐 아니라 더없이 쾌적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수련회장은 숲으로 둘러싸인 잔디가 무성한 야

외 운동장이었지만 수많은 잠자리가 모기, 나방 등 해충을 박멸해 주었기 때문이다. 숙박업체 주인은 물론, 수련회장 인근 주민들은 “산 주변이라 벌레와 나방이 너무 많아 해충을 치우는 것이 일어었는데 만민 수련회 때에는 어디로 다 사라지고, 성도님들이 가고 나면 다시 많은 벌레가 나온다.”며 하나같이 신기해했다.

그해 여름이 지나고 어느새 자취를 감췄던 잠자리들은 이듬해 여름 또다시 만민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첫해부터 올해까지 10년째 매년 여름이면 어김없이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 매년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만민 하계수련회에는 잠자리 체험을 위해 해외에서 참석하는 성도들이 있을 정도이다.

이처럼 기이한 잠자리는 매년 수련회뿐 아니라 교육이나 여름성경학교 등 각종 교회 행사는 물론이고 가정이나 직장 등 국내

외 만민 성도들이 있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또한 기이한 체험을 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출 16:13~14).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늘 곧 영의 공간에서 내려온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것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의 공간과 육의 공간이 실재하고 있음을 믿을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며, 이는 성경이 참임을 보여 주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이 아닐 수 없다. 올 여름에도 예쁜 잠자리와 얼마나 행복한 추억을 만들게 될지 사뭇 기대된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예수께서 ...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 그리한즉 고기를 에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 (누가복음 5:3~7)

#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의 사람 엘리야를 섬겨 3년 6개월의 가뭄 동안 양식이 끊이지 않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란 생명과도 같은 아주 값진 것이었지요. 그것으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공개한 결과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왕상 17:8-16).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 편에서 정성껏 심는 행함이 있어야 참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 2.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함

시몬이 밤새도록 일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음을 이미 아신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시몬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선뜻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닷가에서 어릴 때부터 고기잡이 일을 배워서 어디가 깊고 낮은지, 어디가 고기가 잘 잡히고 안 잡히는지 꿰뚫어 아는 전문가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시몬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 생각을 동원했다면 “선생님! 전문가인 제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도 고기가 안 잡혔습니다. 고기가 다른 데로 이동해서 이 근방에는 없습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렸습니다. 과연 고기가 그물에 가득해 다른 배의 동무들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해야 했지요. 이렇게 잡힌 고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두 배에 채우매 잡히게 되었더라”고 했습니다(눅 5:7).

이처럼 시몬이 축복받은 것은 자기 생각과 지식, 경험을 동원치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 행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고기잡이 일에 전문가가 아니시지만 표적을 베푸시고 말씀에 권세가 있으심을 알았지요. 이러한 분의 말씀이라면 비록 그것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맞지 않아도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믿고 인정한 결과는 시몬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고

그저 좋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리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감히 대면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거룩하신 분이요 그러한 분 앞에 자신은 죄인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교만하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시몬을 기쁘게 여기시고 영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며 제자로 불러 주신 것입니다. 이때도 시몬은 즉시 순종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좇았지요.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그릇됨을 보시고 귀한 제자의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생각을 동원치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또한 이런 사람은 ‘자기가 없으므로’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 영으로도 신속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함을 본받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 인정하시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 3. 깊은 데로 들어가는 인내와 수고

‘물’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지요. 시몬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많은 고기를 잡아서 끌어 올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마음 가운데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 무수한 보화를 캐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깊은 마음을 지니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정확하게 운행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는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영의 세계에 비하면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깊고 넓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담겨 있지요. 하나님의 깊은 마음 가운데로 들어갈수록 각종 좋은 은사와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

니다. 시몬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와 수고가 따랐다는 것입니다. 밤새 일해 지치고 피곤했지만 다시 힘을 내어 노를 저어가야 했지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깊은 마음 가운데로 들어가려면 인내와 수고가 따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깊은 마음 가운데로 들어가려면 그만큼 영으로 들어가는 수고가 따르는 것입니다. 바로 욕을 벗고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는 수고를 해야 하지요(히 12:4).

또한 자기가 깨어지는 아픔을 감수하더라도 자기 생각과 이론의 틀을 철저히 깨뜨려야 합니다. 때로는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자기의 의도 버려야 하지요. 그리고 부르짖어 불같이 기도함으로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몬이 자기 생각의 한계를 넘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은 것처럼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일에 대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 삶을 원한다면 죄를 싸워버려야 합니다. 또 선을 행하되 피곤해하거나 낙심하지 말며 깊은 물 가운데로 힘차게 노를 저어가야 합니다. 깊은 물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풍랑과 같은 시련을 만나고 파도에 밀려 뒤로 갈 수도 있습니다. 혹여 이런 일을 만난다 해도 믿음을 잃지 말고 다시 힘을 내어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환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깊은 데로 들어가는 것을 보시고 놀라운 응답과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범한 어부였던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반석’이라는 의미의 ‘베드로’라는 새 이름과 천국 열쇠를 받았지요(마 16:18-19). 또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로서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면서 순교함으로 값진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시몬 베드로처럼 복된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신 것은 단순히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축복의 비결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과연 그 안에 담긴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 1. 심고 거두는 축복의 비결

본문을 보면 어부 시몬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어찌된 일인지 고기가 거의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시자 시몬은 자신의 배를 내어드렸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실 뿐 아니라 많은 병자를 고치고 능력이 많은 분임을 사람들로부터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우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는 시몬처럼 하나님께 심는 행함과 정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고기를 못 잡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배를 내어드린 시몬처럼 우리도 최소한의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네가 보거나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양식인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으로 하나님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경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 월요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장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장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는행** 1002-253-985877 (예금주 이경진)

# 육신의 생각을 깨뜨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으려면?



고린도전서 2장 10~11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했다. 또한 로마서 8장 14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다.

이처럼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하심은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성령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원수 된 육신의 생각을 깨뜨려야 한다(롬 8:7). 그러면 어떻게 해야 육신의 생각을 철저히 깨뜨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음성과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 첫째,

### 마음 안의 비진리를 벗어버려야 한다

성령의 음성은 귀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리는 음성이며, 마음 안에 일궈진 진리를 통해 들려진다. 그래서 무엇을 보고 들을 때 마음 안에 비진리가 있으면 성령의 음성을 듣기 전에 육신의 생각이 먼저 떠오른다. 육신의 생각은 마음 안에 있는 비진리가 혼의 작용을 통해 나오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을 욕하는 것을 들으면, '무례하다. 불쾌하다. 자존심 상한다.' 등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러한 혼의 작용을 따라 자기 안에 있는 비진리의 마음이 요동해 혐기, 감정, 미움, 이런 것들이 속에서부터 부글부글 끓어 오르고 '혼을 내줘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난다. 그러면서 얼굴빛이 붉으락푸르락하고 거친 음성으로 욕하기도 하며, 무엇을 던지거나 때리는 등 폭력을 쓰기도 한다.

이렇게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롬 8:7-8).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는 믿음을 가질 수 없고 하나님 역사를 체험할 수도 없으며 영으로 들어가기는 더욱 어렵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으려면 신속히 마음 안의 비진리를 벗어버려야 한다.

## 둘째,

### 희미한 성령의 음성이라도 들으면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

성령의 음성은 마음을 진리로 일군 만큼 밝히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 마음에 비진리가 남아 있다 해도 동시에 진리의 마음도 있기에 한 편으로는 성령의 음성이 들린다.

이처럼 성령의 음성이 희미하게 들려와도 듣는 대로 열심히

히 순종해가면 그만큼 마음이 진리로 채워지고, 성령의 음성도 밝히 들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직 성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할 때는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떠오른다. '속상하다. 밉다.' 하는 육신의 생각과 '온유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성령의 음성이 들린다.

이때 단호하게 성령의 음성을 택해 순종한다면 그만큼 마음의 악이 버려질 수 있고 점점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게 된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도 불순종하고 비진리를 행하기 때문이다. 큰 소리와 작은 소리가 함께 들린다 해도 작은 소리를 집중해 들으려고 하면 들을 수 있는 것처럼 희미한 성령의 음성이라도 듣고자 힘써 노력하면 들을 수 있다.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모함이다. 성령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순종할 마음이라면 미세한 성령의 음성도 들을 수 있다. 이같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마음으로 열심히 진리를 행해 나가는 만큼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게 되며, 성령의 주관을 받은 대로 순종하는 만큼 비진리도 신속하게 버릴 수 있다.

## 셋째,

### 불같은 기도를 해야 한다

두 개의 라디오에서 각각 다른 방송을 들었다고 가정할 때, 한쪽 라디오 볼륨을 크게 하면 그 방송을 더 잘 들을 수 있듯이 불같은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다.

이처럼 심방을 할 때도 먼저 그 영혼을 놓고 충만히 기도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정확한 심방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일을 지키지 않은 영혼을 심방할 때 그냥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한다면 그것

으로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

먼저 불같은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러면 성령은 주일을 지키지 않는 근본 이유를 알게 하시거나, 혹은 그에게 적합한 하나님 말씀 구절을 떠올려 주심으로 그것을 상대에게 전할 때 마음 문을 열고 은혜를 받아 결국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이다. 때로는 갑작스런 심방으로 인해 미리 기도로 준비하지 못했다 해도 기도를 쉬지 않고 항상 성령 충만함을 입고 있으면 심방할 영혼이나 가정에 대해 잠시 동안 기도를 해도 수월하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 TIP

### 성령의 음성과 자기 생각을 구별하는 법

우리가 분별하기 원하는 내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음성이 더 뚜렷하게 들린다. 이처럼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순종했을 때의 결과를 통해서도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위로부터 기쁨과 감사가 임하고 성령 충만함이 임하거나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성령의 음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 말을 듣기도 한다. 또한 순종을 통해 눈에 보이는 축복의 열매를 거둬서 확인할 수 있다.

기도 중에 성령의 음성이 오면 마음에 주관을 받게 된다. 이때 기도를 잠시 묵상으로 돌리고 그것을 되뇌이며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 성령의 주관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더욱이 불같은 기도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면 항상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기에 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관을 받을 수 있다.

**이재욱 목사의 생명의 말씀**

- 2차 영혼육 5-9
- 우리의 열심은
- 일곱교회 1-5
- 지옥 2-6
- 민음의 분량 21-25
- 축복 5
- 신앙생활 쉽게하기 1
- 선
- 요한계시록 강해 82
- 요한일서 강해 17-23
- 성령의 음성주관인도 12-15

**GCN TV설교**

- 우리가 채워야 할 공의(이수진 목사)
- 구제(이미영 목사)
- 나의 수고는? 2(이미경 목사)
- 착한 행실(이희선 목사)
- 참된 감사(신동초 목사)
- 열 재앙 17(정구영 목사)
- 성령의 9가지 열매 10(김수정 목사)

**예능 프로그램**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39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25
- 옛날 옛적에 1
- English 13
- 즐거운 요리 23
- 내 마음의 찬양 14
- 흥겨운 소리 5
- 창조와 과학 12
- 모두 드려요 31
- 뷰티플레이프 9

**해외성회 프로그램**

- 에스토니아 연합성회 2
- 회상 26

2015.07.12~07.18  
**주요 프로그램 안내**

**GCN HD 채널  
kt alleh tv 882번**

저는 대구의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성실히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사춘기를 겪으면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는 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보며 매우 실망이 컸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를 궁구하며 성경은 물론, 국내외 신학 관련 책도 읽으며 도움을 받고자 했지만 마음의 악은 버릴 수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초에는 ‘정말 하나님은 계시까?’ 하는 냉소적인 시각을 갖고 삶의 의미를 잃어가기 시작했지요. 심지어 철학이나 불교 등 다른 종교에서 삶의 의미와 만족을 얻고자 했지만 어디서든 제 마음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좋아하는 학문 속에서 즐거움을 얻으며 의과대학을 좋은 성적으로 졸업한 뒤에는 모교인 경북대학교의대에서 생리학을 가르치며 살아갔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참 스승을 만나**

어머니는 이재록 목사님의 간증 수기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를 읽고 큰 감명을 받으신 뒤 세계 서울 만민중앙교회에 가볼 것을 권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만민중앙교회 금요철야예배와 주일 대예배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1987년 9월, 당시 금요철야예배는 ‘욥기강해’, 주일대예배는 ‘믿음의 분량’을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는데, 어디서든 들어보지 못한 권세 있는 가르침임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그토록 갈망한 마음의 할례와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답들이 있었지요. 밝은 빛 가운데 내 속의 악을 발견하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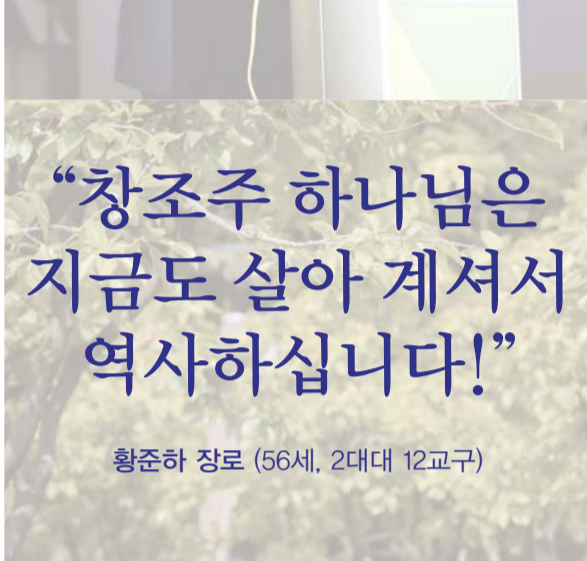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참임을 입증하는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를 보며 제 마음은 뜨거웠지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사랑이 사무치도록 마음에 느껴지며 통회자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이런 성령 체험은 처음이었지요. 너무 기뻐했습니다.

저는 매주 주일예배 참석을 위해 대구에서 서울까지 다섯 시간 거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가는 길에는 당회장님의 수많은 설교테이프를 들었고, 또한 저서들도 정독했지요. 갈급하게 찾던 가르침을 만났으니 그대로 실행해 신속히 주님의 마음을 닦으리라 결단한 것입니다.

다음 해인 1988년 1월 31일, 진해에서 군의관으로서 군복무를 하면서부터는 마산만민성결교회로 출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조미옥 권사를 만나 1989년 5월에 결혼했지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영의 세계를 체험하고**

1990년, 외할머니고 조분한 권사가 대상포진 후유증으로 인해 1년이 넘도록 극심한 신경통으로 피골이 상접해 고통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회장님께서 부흥성회 인도차 대구에 오셨다가 외할머니를 기도해 주셨는데, 이때 외할머니가 “귀신이 나간다!”라고 고함을 지르시더니 극심한 고통이 사라지고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 WCDN 멕시코 콘퍼런스에서 큰딸 찬미 자매(맨 오른쪽)의 석회성 건염 치유 사례를 발표하고 있는 황준하 박사. 가족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아내 조미옥 권사, 작은 딸 주은 자매).

이처럼 영의 세계와 당회장님의 권능을 체험하면서 저는 주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던 중, 1992년

만민중앙교회 레위족(교회 상근 직원)으로 일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1996년 11월에는 당회장님께서 기도하시는 곳에 동행했는데, 그때 저는 밤하늘의 기사를 보며 제 지식과 이론이 철저히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별에 관한 대화를 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관련 분야에 지식이 있었기에 당회장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며 제 주장을 했지요. 그런데 밖에 나와 하늘을 보던 중 세상의 이론과 지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창조주 하나님 권능의 역사를 목도케 하신 것입니다. 달 주변에 매우 큰 원이 형성됐는데, 원 밖에는 구름이 가득 찼고 원 안에는 전혀 구름이 없었지요. 바람이 세계 불어도 수 시간 동안 원 안으로는 구름이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현상이 아님을 직감할 수 있었지요.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제 주장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하시며 장차 목자와 함께 세계를 이루려면 철저히 변화돼야 할 것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 뒤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며 마음의 성결을 이루고자 노력했지만 늘 한계에 부딪히곤 했지요. 그만큼 ‘나라는 것이 강했기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영의 마음으로 전 세계에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2013년 어느 날, 당회장님께서 “영의 마음을 이루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닌데... 자신을 무로 돌리면 되는데...”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저는 당회장님께서 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철저히 제 자신을 깨뜨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영혼들을 향한 당회장님의 깊은 사랑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우치니 제 마음은 더욱더 변화가 절실했지요.

무엇보다 상대 입장에서 바라보며 마음을 바꾸고자 노력하니 진심으로 상대의 유익을 구해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변화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참으로 신기했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변화되는구나!”라고 깨우치며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 성령의 도우심 속에 능히 마음의 성결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으로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러던 2015년 6월, 영의 마음을 이루는 축복을 받았지요. 할렐루야!

저는 WCDN(세계기독교사네트워크, 이사장 당회장 이재록 목사) 부회장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WCDN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기적적인 치유 사례들을 의학적인 증거 자료들을 통해 입증함으로써 살아 계신 하나님과 성경이 참임을 증거하는 초교파적인 국제 기독교학 단체입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수백 명의 의사가 모인 가운데 국제 기독교학 콘퍼런스가 개최돼 저는 당회장님의 기도로 치료받은 사례 발표나 권능의 역사를 특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멕시코 콘퍼런스 때에는 큰딸(황찬미)과 함께 참석해 딸에게 발병했던 왼쪽 손목 석회성 건염을 기도로 치료받은 사례를 발표해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됐지요.

이렇게 지금도 살아 계셔서 무수한 권능의 역사로 나타내 보이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전 세계 만민에게 증거하는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주일 대예배, 주일 자매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4182-419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백성 5/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동진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영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청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안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도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3층 ☎054)281-2468, 010-9773-701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3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학산로 22, 연생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8927-2073
- 경인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7133-9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김춘로 18, 아연B/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우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대로 112, 5층 ☎010-7133-9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8331-1136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증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